

추석후에도 큰 폭 하락은 없다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1. 서론

한발의 위기상황에서 단비를 흠족히 내리게 하고, 태풍의 위협에서도 조용히 지나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는 것을 느낀다. 가뭄과 폭염은 밤잠도 설치게 하였지만, 그런 연유로 도열병이 없다 하니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런가?

2. 돈육 수출업체 고민 크다

7월 하순의 하락세가 보름동안 계속 된 것은 꺾통더위로 소비둔화 현상이었으므로 덕분에 수출업체가 조금은 한숨을 돌리다가 했으나, 8월 들어서 계속하여 폭등세로 연이어지고 있으니 대일수출에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신용 사회에서 안면몰수 할 수도 없고, 계약이행을 하려니 두당 만원이상 적자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예년처럼 추석후 급락한다는 비전도 없으니 더욱 답답하다. 폭염으로 임신돈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그 여파는 95년초 즉, 구정 전후에도 시세가 좋아질 것을 예측하게 된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시책으로 수출 단지의 조성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속된 농가가 생산비 절감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길 뿐이다. 2억원의 70% 융자금 1억4천 만원인데 3년 거치 기간에 연리 5%면 매년 7백만원 이자와 거치기간 만료된 4년째 부터는 원금을 매년 2천만 원씩 반제해 나가야 함과 잔액에 대한 5%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농장의 경영 수지를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계다가 매년 수입 쿼터량이 늘어 가다가(95년 22,000t, 96년 30,000t) 97년 7월 1일부터는 완전 개방이 되는 것임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출단지 25개소 예비단지 15개소가 확정, 발표 되었거니와 보다 과학적인 사양관리 알뜰 경영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3. 수입 돈육 방출은

추석을 앞에 놓고 돼지 시세는 상한선을 웃돌고, 그로 인하여 물가 당국은 대책 협의를 수차 가졌으며, 무제한 수입이란 말까지 나오게 되었

66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후유증은 길게 연이어지듯이 금번 폭염 스트레스는 돈육생산에 파급되는 영향이 당분간 연이어지게 되므로 추석후에도 시세는 폭락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99

으나, 생산자 단체 등의 반대와 요행히 7월 하순의 일시적 내림세로 3천톤 수입에 그친 것이다. 지난 4월의 1만톤 계약에 이어 금번 3천톤 계약 하였으니 총 1만3천톤이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9천5백톤 수입되었고, 3천5백톤이 들어올 것인즉 2천5백톤은 8월중에 입항되고 나머지 1천톤은 9월중에 입항 예정이다. 따라서 재고량의 부족으로(500톤) 하루 30~50톤 정도 방출하여 오다가 최근 8월 18일부터 하루 100톤이상 방출함을 보게 되는데, 추석 대목을 겨냥한 방출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혹서로 인하여 모든의 피해는 후에 영향을 주겠지만, 육성돈의 발육지연으로 매물이 딸리는 상황이 당분간 연이어질 것이므로 3천톤 계약물량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 물가 당국의 심정이다. 그토록 무덤덤 열대야 현상에서 아침에는 제법 선선함을 느끼니 찬바람과 함께 돼지고기가 제법 소비될 것을 생각하게 한다.

4. 7월 사료 생산량 전년비 10% 이상 감소

7월 돼지사료 생산량 31만2천톤은 전년동기

35만톤에 비하면 10%도 넘게 감소생산된 셈인데, 이는 돼지두수가 감소하였다기 보다는 유별난 혹서로 돈공들이 입맛을 잃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입맛을 잃어서이건, 두수가 줄어서이건 결론은 출하될 돼지의 물량이 감소된다는 것으로 귀착하게 된다. 어떤 연유로든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후유증은 길게 연이어지듯이, 금번 폭염 스트레스는 돈육생산에 파급되는 영향이 당분간 연이어지게 되므로 추석후에도 시세는 폭락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돈업계에 소속된 사람들의 심정은 고추가루 장수와 우산장수의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이라 하겠다. 우리 돼지가 보다 많이 수출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지니 그 또한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양돈기반이 튼튼해지려면 수출의 기반이 튼튼해지므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생업이 지탱될 수 있으니까.

5. 소비자를 보호해야

집안에서 귀염받는 자식이 밖에서도 귀염받으려고 하듯이 우리의 양돈산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먼저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돼지가 품귀 현상이라 하여 정육점에서 덩달아 올려 받기만 한다면 우선은 좋을지 모르나, 육류가 돼지고기 외에도 너무나 다양하므로 손님을 잃게 되면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산자 단체들의 직판장 만이라도 소비자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즉, 이것이 수입을 저지하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손해 보면서 장사할 수가 없겠지만, 실비 제공의 마음으로 돈육의 손님을 유치해 나아가야 할 것이란 뜻이다. 전국 정육점을 유도 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